

에이스·시몬스 이어 쉘리까지… 여주·이천 ‘침대 메카’ 우뚝

생산·R&D·물류 거점 한곳에
자동화·수작업 생산방식 다양

에이스, 여주공장 연 13만조 생산
시몬스, 이천공장 하루 최대 1000조
쉘리, 아시아 최대 여주공장 가동

경기 여주·이천지역이 브랜드 침대 생산의 메카로 완벽하게 거듭나고 있다.

침대업계 선두그룹인 에이스침대, 시몬스가 이들 지역에 일찌감치 터를 잡고 있는 가운데 최근엔 외국계인 쉘리침대까지 대규모 공장을 완공해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13일 침대업계와 관련 기업들에 따르면 에이스침대는 1990년부터 침대를 생산했던 아트레 여주공장(가남면 상활리)을 2003년에 인수·합병하면서 1995년부터 가동했던 충북 음성공장과 함께 2곳에서 침대를 제조하고 있다. 메인인 음성공장과 서브인 여주공장에서 생산할 수 있는 침대는 연간 총 43만대 규모에 이른다.

에이스침대 여주공장은 9만419㎡(약 2만7000평)로 하루 450조, 연간 기준 약 13만조의 침대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다.

면적만 10만평(30만53㎡)에 가까운 음성공장은 하루 약 1000조, 연간 30만조 가량을 생산할 수 있다. 특히 음성공장은 국내에서 처음이자 세계에선 두번째로 전자동 무인생산시스템을 구축, 국내 침대 제조 자동화를 이끌고 있다. 음성공장의 자동화율은 70%가 넘는다.

이에 더해 에이스침대는 여주·음성공장에 총 5940kW 규모의 태양광 발전 설



경기 여주 가남면에 위치한 에이스침대 여주공장 전경.



경기 이천 모가면에 있는 시몬스의 생산 공장 ‘시몬스 팩토리움’



쉘리침대가 경기 여주 오금동에 최근 완공한 신공장 전경.

비와 공장에너지관리시스템(FEMS)을 업계 처음으로 구축, 연간 약 7.62GWh의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며 친환경 스마트 생산기지로 탈바꿈하기도 했다.

에이스침대 관계자는 “두 공장에 구축한 태양광 발전 설비 등을 통해 연간 약 15억원의 전기요금 절감과 3617톤 규모의 탄소배출 감축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면서 “음성공장은 매트리스 생산과 침대공학연구소를 아우르는 핵심 생산·연구 거점 역할을, 여주공장은 효율적인 제조 인프라를 기반으로 생산 물량을 분담하는 역할을 각각하며 상호보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몬스는 이천 모가면의 5만9647㎡(약 1만8000평) 공간에 1500억원 가량을 들여 수면 연구 R&D센터와 생산시스템 등을 두루 갖춘 공장 ‘시몬스 팩토리움’을 짓고

2017년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시몬스 팩토리움의 핵심인 수면 연구 R&D센터에선 44종의 시험기기로 187개의 테스트를 통해 원자재 준비부터 제품 최종 검수까지 절차를 거치고 있다. 생산을 담당하고 있는 시몬스 김동현 이사는 “팩토리움 생산동은 9m의 층고를 확보해 공기 흐름이 원활하도록 설계했다. 공조시스템을 통해 생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먼지와 오염 요소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면서 “매트리스 생산 과정에서 별도의 오펜수가 발생하지 않는 제조 방식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작업자의 청결과 안전 뿐만 아니라 생산 과정에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시몬스 팩토리움은 하루 최대 1000조 이상의 매트리스 생산이 가능하다. 하지만 품질 유지를 위해 일일 생산량을 600~

700조로 유지하고 있다.

팩토리움 한쪽에 위치한 물류동은 최대 1만5000조의 매트리스를 쌓아둘 수 있다. 시몬스는 2018년부터 업계에서 유일하게 생산, 보관, 출고, 배송 등 모든 과정을 담당하는 자체 작배송 시스템을 도입했다. 이에 따라 평일 기준으로 고객이 구매 후 사흘 이내에 제품을 받아볼 수 있도록 하면서 ‘가구 배송은 느리다’는 선입견을 깼다.

에이스침대를 이끌고 있는 안성호 대표, 시몬스의 안성호 대표는 ‘침대 대부’로 불리는 고 안우수 에이스침대 창업주의 아들이다. 형과 동생이 나란히 이웃 동네에서 제품을 생산하며 브랜드 침대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엔 쉘리침대가 여주 오금동에 1만5183㎡(약 4600평) 규모의

공장을 새로 구축하고 가동을 시작했다.

이는 아시아권에 있는 쉘리의 매트리스 생산기지 중 가장 규모가 크다.

구매동, 생산동, 물류동, 쇼룸으로 이뤄진 쉘리침대 여주공장의 하루 최대 생산량은 약 500조 정도다.

쉘리침대 관계자는 “모든 생산 공정은 전 세계 공장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글로벌 매뉴얼(General Specifications Manual, GSM)을 기준으로 운영한다”면서 “쉘리침대는 자동화 설비에 의존하기보다 숙련된 인력의 수작업을 바탕으로 주문 후 제작·다품종 소량 생산 체계를 고수하며 현재 110여 종의 제품군을 생산하고 있다”고 전했다. 쉘리코리아는 1998년 한국 시장에 처음 진출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metro

기아, ‘PV7’ 공개… 유럽 전기 상용차 공략

PV5 유럽 전기밴 1위 발판
PV7 세계 첫 공개·내년 출시
PBV 라인업 넓혀 현지 공략 강화

전 세계 주요 상용차와 물류 솔루션 등 미래 상용차 기술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상용 모빌리티 전시회 ‘IAA 트랜스포테이션 2026’이 개막 초읽기에 들어갔다.

국내에서는 기아가 대형 전용 전기 목적기반모빌리티(PBV) ‘PV7’을 세계 최초로 공개하며 유럽 전동화 상용차 시장 공략을 강화한다.

13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IAA 트랜스포테이션 2026’은 14일부터 20일까지 독일 하노버에서 개최된다. 14일은 언론 공개 행사로 운영되며 일반 관람은 15일부터 시작된다.

국내 완성차 업체 중 유일하게 이번 전시회에 참석한 기아는 1531㎡ 규모의 전시관을 마련해 PV7 3대와 PV5 7대를 전시하고, 차량 크기와 용도별로 확정되는 PBV 전략을 선보인다.

기아는 PV7을 PV5에 이은 두 번째 전용 전기 PBV로 선보인다. (PV7은) PBV 전용 전동화 플랫폼 ‘E-GMP.S’를 기반으로 하며 PV5보다 큰 차체와 넓은 공간을 갖춰 물류와 여객, 레저 등 다양한 수요를 겨냥한다. 유럽 출시는 내년으로 예정돼 있다.

기아가 PV7의 첫 공개 무대로 유럽을 선택한 것은 현지 전기 상용차 시장 공



IAA 트랜스포테이션 2024 사진.

/IAA Transportation

략에 속도를 내기 위해서다. 데이터포스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유럽 전기 경용차 시장은 전년 동기 대비 10.2% 증가한 반면 전체 경용차 시장은 8.7% 감소했다.

특히 PV5는 올해 상반기 유럽 C세그먼트 전기 밴 시장에서 점유율 30.4%로 1위를 차지했다. 기아는 PV5의 시장 안착을 바탕으로 PV7까지 라인업을 확대해 유럽 PBV 시장에서 영향력을 넓히는 계획이다.

글로벌 상용차 업체들도 장거리 친환경 운송 기술을 전면에 내세운다. 볼보트릭은 최대 700km를 주행하는 ‘FH Aero Electric’을, 르노트릭은 최대 660km 주행이 가능한 ‘E-Tech T780’을 선보인다. 메르세데스-벤츠 트릭은 1회 수소 충전으로 1000km 이상 주행할 수 있는 ‘NextGen H2 Truck’을 전시한다.

다만 유럽 상용차 시장은 여전히 디젤 중심이다. 유럽자동차공업협회(ACEA)

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EU 신규 트럭의 92.1%가 디젤이었고, 충전식 전기트럭 비중은 4.8%에 그쳤다.

완성차 업체들은 강화되는 탄소배출 규제에 대응해 전기·수소 상용차 개발을 확대하고 있다. EU는 대형 상용차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19년 대비 2030년 45%, 2035년 65%, 2040년 90%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자율주행과 소프트웨어도 주요 의제다. 중국 스카이워스모토는 레벨4 자율주행에 대응하도록 설계한 대형 전기트럭 ‘Z9’을 세계 최초로 선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상용차 경쟁은 단순 주행거리보다 충전 시간과 적재량, 차량 가격, 에너지 비용을 포함한 실제 운송 경제성으로 옮겨가고 있다”며 “전기과 수소, 고효율 내연기관이 운송 환경에 따라 당분간 병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승혁 기자 sh95@

재창업자 ‘재도전 힐링캠프’ 운영

중진공, 폐업 이력 재창업자 30명 대상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실패 경험을 딛고 재도전에 나선 재창업자의 도약을 지원하기 위해 ‘재도전 힐링캠프’ 참여자를 14일부터 선착순 모집한다.

13일 중진공에 따르면 힐링캠프는 이달 30일부터 10월 1일까지 1박 2일간 경기도 이천 소재 동원리더스아카데미에서 진행하며 폐업 이력이 있는 재창업자 30명을 대상으로 운영한다.

올해 중진공은 ‘재도전응원본부’를 중심으로 민간·유관기관과 협력해 ▲강원·충청 권역별 전문가 집단멘토링 ▲재창업

특화교육·컨설팅 ▲현장 간담회 등 재창업기업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 재창업자가 새로운 도전을 이어가기 위해선 사업 역량 강화뿐만 아니라 심리적 부담을 덜고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는 내적 지원도 필요하다. 이에 이번 힐링캠프는 재창업자의 심리 회복과 회복 탄력성 향상에 초점을 맞춰 마련됐다.

주요 프로그램으로 참여자의 심리상태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한 ▲인생곡선 그리기 등 집단상담 프로그램 ▲항기 테라피 등을 비롯해, 실패 경험과 재창업 과정을 공유하는 ▲재도전 네트워킹 등으로 구성됐다.

/김승호 기자

중기부, 상생협력 유공·포상 후보 모집

성과공유·상생결제 등 3개 분야

중소벤처기업부가 14일부터 오는 10월 13일까지 ‘2026년 상생협력 촉진제도 유공·포상 후보자’를 모집한다.

13일 중기부에 따르면 이번 포상의 공모 분야는 ▲성과공유제 확산 ▲상생결제 확산 ▲사업영역보호 등 총 3개이며 중기부 장관 표창 총 32점을 수여할 예정이다.

먼저 ‘성과공유제 확산’ 분야에서는 위탁·수탁기업 간 혁신적인 공동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협업·노력해 발생한 성과를 효과적으로 공유한 기업을 공모한다.

성과공유 과제 이행을 확인받은 위탁·수탁기업이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우수 성과공유 과제 3건을 선정해 총 6점의 표창을 수여한다.

‘상생결제 확산’ 분야에선 상생결제를 선도적으로 도입·활용하거나 2차 이하 하위 거래단계로 상생결제를 통한 대금지급을 확산하는 등 상생결제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를 대상으로 총 20점의 표창을 수여한다.

특히 올해는 지난 5월 발표한 ‘상생결제 제도개선 방안’ 후속조치로, 일반 상생결제와 구분해 유통 분야 상생결제를 별도로 포상한다.

/김승호 기자